

## 중세복식에 나타난 성(性)의 이원론적 사고

남 윤 숙

신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패션디자인산업학과

### A Study on the Dualism of Gender through the Costume in the Middle Age

Nam, Yoon Sook

Dept. of Fashion Design and Industry, Silla University  
(2001. 4. 4 접수)

####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dualism of gender through the costume in the Middle Age. Jeanne d'Arc was an existential person in the Hundred Year's war(1338~1453). She persisted in retaining male attire and armour at her own request. One of the points for which she had been condemned was the wearing of male apparel. It was judged as an evil spirit and rendered Jeanne a witch and a heretic therefore she was burned to death in the market place at Rouen, on the 30th May, 1431. It is one of the evidence which represent dualism of gender through the costume.

**Key words:** Jeanne d'arc(Joan of Arc), dualism, witch, heretic, male attire;  
잔 다르크(잔 다르크), 이원론, 마녀, 이단자, 남장

#### I. 서 론

오늘날 나타나는 복식현상 중 특징적인 것은 복식을 통한 성(性)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남성은 바지, 여성은 스커트로 명확히 구분되던 성차의 모호해짐은 복식에서 남녀 이분법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남녀간의 성차의 무효화와 함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성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변하게 하고 그로 인해 새롭게 형성되는 가치체계의 출현에 의한 것이다. 새로운 가치체계는 기존의 가치체계를 해체하고 재정립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복식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식을 통해 나타나는 성에 대한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2000년도 신라대학교 연구비로 이루어졌음.

복식에 나타난 성에 대한 개념 중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기본개념은 이분법이다. 인간의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각 성은 외형상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복장을 해야하고 또한 남녀 각 성은 다른 성의 복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오로지 자신이 속한 성의 복장을 하여 남녀간의 복식을 대립의 구도 속에 놓이게 하는 이른바 성의 이분법적 사고는 중세에서 오늘날까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기본개념이다.

잔 다르크(Jeanne d'arc, Joan of Arc)는 14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프랑스와 영국간에 벌어진 백년전쟁(1338~1453) 당시의 실존 인물로 프랑스에 승리를 안겨준 여성이지만 종교재판의 결과 신을 모독하고 교회질서를 어지럽힌 이단자로 취급받고 화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졌다. 잔을 처형에 이르게 한 결정적 요인의 하나는 당시의 군복 즉 남장을 한 것이다. 복식을 통해 남녀간의 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세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을 하나의 축으로 했을 때 잔이 실존했던 15세기초는 복장상 남녀간의 성의 구분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그것을 어긴 것이 큰 죄로 인정되어 형벌중에서도 극형인 화형에 처하였다는 것은 당시 복장을 통한 성의 이분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성의 이분법은 이원론에 근거하는 것으로 본연구에서는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철학의 사고체계하에서 복식을 통한 성의 구분이 사회적 규범으로 고정되고 관념화되는 것에 관해 살펴보는 데에 연구의 의의 및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본연구에서는 성의 이분법이 갖고 있는 결정론적 사고체계가 전통적인 성의 개념으로 복식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잔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잔의 남장 및 처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고찰 및 분석은 복식을 통해 사회적 상징성과 성(gender)의 정체성을 내용으로 하는 성의 이분법을 엄격히 유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구속력을 알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성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치질서가 모색되고 있는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복식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관련 논문, 단행본, 도판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등 문헌을 통한 고찰을 하였다. 잔에 대한 책은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소개되고 있으나 전쟁에서의 영웅적인 소녀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문학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잔이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교재판과 복권재판의 기록문을 참조하여 잔의 생애를 냉정하고 성실하게 서술한 책인<sup>1)</sup> 헤르베르트 네테(Herbert Nette, 이은희 역)가 저술한 “Jeanne d'Arc”를 기본자료로 하였다. 이 책에는 각 상황에 대해 재판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서술이 되고 있으나 잔이 착용한 복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단지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가 게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잔이 생존한 시기에 그려진 초상화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sup>2)</sup> 잔의 복장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주로 그녀의 생존 시기와 근접한 15세기에 그려진 작품들을 참고로 하고 이밖에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 문헌들을 참고 자료로

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는 복식사 및 복식미학 분야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지만 본연구를 위해 기본자료로 사용한 문헌은 객관적으로 쓰여진 책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번역서이고, 기타의 문헌들도 2차적인 자료라는 점이 본연구의 제한점이다.

## II. 성(性)의 이분법과 복식의 규범

### 1. 성의 이분법

성의 이분법은 이원론(dualism)에 근거하는 것으로 인간의 성을 남성 대 여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이 엄격히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특질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개념이다. 이원론은 우주적인 관계와 힘을 표현하는 오랜 표현양식으로 기독교 사상의 근간이다. 기독교에서 이원론은 선과 악,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 같이 상반되는 개념들은 서로 대립 또는 갈등의 관계에 있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두가지 중 하나에 속한다고 믿는 개념이다<sup>3)</sup>.

히브리 사상의 모태에서 태어난 기독교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히브리 사상 대신에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과 정신 우월적인 희랍의 사상을 그대로 채택하고 철저한 남성 우위 사상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플라톤은 인간을 질적으로 상이한 육체와 정신의 집합체로 보았으며 그의 이러한 이원론은 기독교에 흡수되어 성에 대한 기독교 윤리관의 기초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서양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4)</sup>. 이러한 개념은 기독교가 인간의 의식체계와 생활의 전반을 지배하던 중세 사회에서 특히 강조된 것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남녀 각각의 성을 특징 짓고 그에 따른 성역할을 요구하는 바탕이 되었다.

제프리 워스는 이상적인 남성은 공격적이고 경쟁적이며 논리적인 남자를 의미하고 이상적인 여성이란 감정적이고 직관적이며 현실적이고 복종하는 여자라고 하였고 성과학자 헤블록 엘리스는 능동성이 본질적으로 남성적인 특성이며, 수동성이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다<sup>5)</sup>. 이와 같이 남성 우위 사상이 옹호되는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인간이었다.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극히 차가웠고 법률은 여성 차별을 그

대로 반영하였다. 결혼해서 얻은 재산은 언제나 남편의 것이고 여성을 재산의 일부로 간주하기도 하였다고 남성의 우위에 대항하려는 여성은 신앙에 의해 금기시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옷차림을 달리하여 남자의 복장을 한 여자들은 여자라는 자연의 사명을 수치스러워하는 것<sup>6)</sup>으로 간주하여 비난을 하였다. 이것은 문화적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다.

다시 말하여 사회적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의 특성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잣대가 되어 남녀간의 복식 및 외모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고 남성과 여성의 복식을 대립의 구도 속에 놓이게 하였다.

## 2. 성의 이분과 복식의 규범

오랜 기간에 걸쳐 한 문화권을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관습을 통털어 규범이라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을 가진 사회적 규범을 관례라고 하는데<sup>7)</sup> 이러한 관례를 동일 집단 내에서 어기는 경우에는 사회적 제재가 가해진다. 잔이 생존한 당시는 기독교가 인간의 의식체계를 지배하던 중세로 이원론이 바탕이 된 복식의 규범 및 관례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시기이다.

중세에 있어서 여자가 남장을 하고 무기를 휴대하는 것은 주체넘은 것이고 남자가 여장을 하는 것은 여자의 약함으로 자신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성의 복장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sup>8)</sup>. 서로 다른 성의 복장을 금하는 내용은 성서에서도 볼 수 있다. 신명기(Deuteronomy 22:5)에는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말라.** 이런 것을 하는 자는 모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 하신다.'

고 하여 남녀 각 성에 따른 복장을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성서가 갖고 있는 비중을 볼 때 이러한 개념은 중세 사회에서 복식에 대한 중요한 기본 틀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복식사상 남녀간의 성별 차이가 뚜렷해진 것은 14세기이다. 따라서 잔의 생존 시기인 15세기 초는 14세기에 바로 이어지는 시점으로 복식사상 새롭게

나타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더욱 확실해져 남녀 각 성에 따른 복장의 구분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남녀의 복식에 나타나는 차이는 우선적으로 남성복 상의의 길이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남성복에서 상의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호르는 그 길이가 길어져 헐까지 올라가게 되어 더블렛(doublet)과 함께 한 벌의 남성복으로 중요한 걸옷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군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당시 투구나 갑옷과 같은 군복의 재질은 쇠사슬에서 금속판으로 이행되는 시기이다. 금속판의 중량을 가능한 경감시키고 움직임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릎 밑에 까지 오던 상의의 길이는 짧게 하고 이에 따라 드러난 하의에는 호르를 착용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일반 남성의 복장으로 확대되어 15세기 남성복의 전형이 되었다. 남성복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남녀 모두에게 통용되던 스커트 형식의 복식에서 남자는 양쪽의 다리를 드러내는 바지형의 복식으로 전환되고, 다리의 형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스커트 형식의 복식은 여성만이 계속 착용하게 됨으로서 남녀간의 복식의 차이로 연결되었다. 그리하여 남자는 바지, 여자는 스커트 형식의 복장이 각각의 성을 확실하고 명료하게 특징짓는 고유 의복으로 자리하고 남녀간에 복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본 틀은 변함없이 몇백년간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반신을 싸고 있는 의복의 형태로 남녀간의 성차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이 틀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이 틀이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되고 이를 어긴 경우 그 사람은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지탄과 제재를 받는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잔이 갑옷으로 된 짧은 상의와 양쪽의 다리를 드러내는 호르로 구성되는 남자의 옷 즉 군복을 착용한 것은 이와 같이 복식을 통한 남녀간의 성역할의 개념이 더욱 확고히 정립되는 변화의 시기였다.

## 3. 종교재판

잔은 종교재판에서 신을 모독하고 교회질서를 어지럽힌 이단자로 선고받고 처형되었다. 최종 재판에

서 재판관이 제시한 잔의 과오는 지상교회에 복종하기를 거부한 것, 불손하게도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고 주장한 것, 남자옷 벗기를 거부한 것 등 세 가지였다<sup>11)</sup>. 이를 볼 때 잔의 처형에는 그녀의 남장이 중요하고 분명한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알게 한다.

중세 유럽인들의 생활과 의식체계를 지배한 것은 기독교이다. 중세의 교육과 학문은 종교적 교리에 의해 그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고 교회의 가르침은 중세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에서 종교재판소는 마법, 연금술, 악마숭배와 같은 이단과 도덕적 범죄 등을 단죄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1231년) 참회를 받아내기 위해 잔인한 고문은 물론 사형까지도 집행하였다.

마법은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인간을 유혹하려는 악마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회에 대항하는 범죄이고 신에 대항하는 이단과 죄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과 법에 의해 억압받았다. 마녀는 초자연적 능력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대상으로 간주되어 모든 마녀들은 고소되고 체포되어 사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여 중세의 종교재판에서는 마녀로 몰리면 끔찍한 고문 끝에 산채로 화형시키는 마녀사냥이 행해졌고 마녀의 처형은 이단 재판의 전통이 긴 프랑스에서 사법적, 종교적 힘을 갖고 그 기능이 수행되었다<sup>12)</sup>.

기독교 신학에서는 남성은 정신, 지성, 영혼과 일치시키는 한편 여성은 자연, 비합리적인 감정, 육체와 동일시 하여 전자를 우월한 것으로 후자를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정당화하였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서로 대립적, 위계적으로 파악하는 신학적 이원론<sup>13)</sup>은 마녀론과 결부되어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여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따라서 마녀사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의 발생이 누군가의 마술에 의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도록 여론을 조작하여 문제의 여성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

잔의 처형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잔에 대한 재판권을 위임하기 위해 주교 피에르 코송에게 내린 교시에서

“설혹 위에 언급한 사항들이나 신앙문제에서 하자가 없

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여자를 다시 우리에게 넘겨달라”

고 하여<sup>14)</sup> 종교재판은 그녀를 처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한다. 이러한 영국 측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여 잔에 대해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잔이 마녀들의 마술과 우상 숭배를 하며 악마와 교류하고 정상 신앙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sup>15)</sup>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대표적 인물이 샤르르(Charles) Ⅷ세의 母, 이자보(Isabo)이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모자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자보는 잔으로 인해 정치적 야망이 수포로 되어버리자 영국의 섭정 베드퍼드공(Duke of Bedford)에게 편지를 보내어 잔 다르크를 마녀의 죄목으로 처형하도록 강하게 요청하였고<sup>16)</sup> 이에 따라 영국의 베드퍼드 공작은 잔을 주문과 주술에 의해 영국군을 퇴치한 마녀로 단정짓고 공식문서에도 그렇게 쓰고 있다. 베드퍼드는 즉위한 샤르르 7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잔과 그녀의 추종자들에 대해

“...그대는 무지한 백성을 오도하고 기만하고 있다. 남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경박하고 뻔뻔스런 그 여자와 미신을 숭배하여 저주받아 마땅할 그런 인간들 덕분에 그대는 그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리라.”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sup>17)</sup>. 베드퍼드는 잔이 참전한 당시의 영국의 섭정으로 그의 생각은 잔의 처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잔에 대한 영국측의 입장과 처형의 배경을 알 수 있고 또한 당시 여성의 남장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어쨌든 잔의 처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교적 교리가 합법적 근거를 마련한 결과 성립되었는데 이때 중요한 죄목의 하나는 그녀의 남장이었다<sup>18)</sup>.

### III. 백년전쟁 및 잔 다르크의 복장

#### 1. 백년전쟁(Hundred Year's War)

프랑스와 영국간의 백년전쟁(1338~1453)은 표면적 원인인 프랑스의 왕위계승 문제 이외에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양쪽의 왕들에 의해 대대로 계승, 수행되었다. 전쟁의 초반, 프랑스는

전술적 후진성과 역대왕들의 무능함으로 인해 주요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모두 패한데다 흑사병(黑死病, 1348~1350)까지 유행되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위기에 처했으나 전쟁의 후반, 프랑스군에게 새로운 용기와 애국심을 불러 일으킨 잔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를 하였다. 전쟁에서의 잔의 역할 및 그 의의는 교착상태의 전세와 전투의 암담한 전망을 타개하여 군사적 승리를 이끌어 내고 랑스(Rhems)교회에서 전례에 따라 샤르르 7세의 즉위식을 거행 성사시켜 프랑스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립시킴으로써 군사적인 것 이상으로 정치적인 의의를 갖는다<sup>9)</sup>.

## 2. 잔 다르크(Jeanne d'arc)의 일생

1412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나 16세가 될 무렵까지는 집안 일을 거들고 성상에 기도하며 지내는 평범한 시골 소녀로 지냈다<sup>10)</sup>. 후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명의 음성'과 환각 또는 환상<sup>11)</sup>을 처음으로 체험한 것은 13세의 여름(1425)이고 이후 잔은 여러 번에 걸쳐 소명의 음성 및 환상을 체험하게 된다.

1428년 오를레앙(Orleans)을 포위한 영국군의 공격이 시작되어 프랑스가 위협해지자, 잔의 마음 속에 이는 '소명의 음성 및 환상'은 더욱 강렬해지고 잔은 이의 실천을 위해 집을 떠나고자 하였으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사정 때문에 친척집을 경유하는 등(1428년 12월 중순) 우여곡절 끝에 샤르르 7세가 있는 왕궁으로 출발했다.(1429.2) 그리하여 잔은 소명의 음성과 환상을 따라 백년전쟁에 참여하고 샤르르 7세를 즉위시켜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립시키는 등 프랑스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곧이어 영국군에 포로가 되고(1430) 종교재판을 거쳐 화형에 처해졌다.(1431.5.30)

## 3. 잔의 복장

잔의 일생은 그녀가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시기는 집을 떠나기 전까지의 농촌에서 보낸 시기, 제2시기는 집을 떠난 이후 전투에 참여한 기간, 제3시기는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힌 이래 처형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3개로 구분된 시기에 따라 잔이 착용한 복장은 다음과 같다.

### 1) 제1시기(1412.1~1428.12)

제1시기는 잔이 1428년 12월 보쿨뢰르(Vancoulers)의 사령관을 만나기 위해 부모의 곁을 떠나기 이전까지 농촌 소녀로 지내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잔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당시의 농촌 소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바느질을 하고 마나 양털로 실을 잣거나 가축에게 꼴을 먹이고 양을 돌보기도 하는 검소하고 평범한 시골 소녀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잔의 복장은 농사 및 집안 일을 도와주는 농촌 소녀의 복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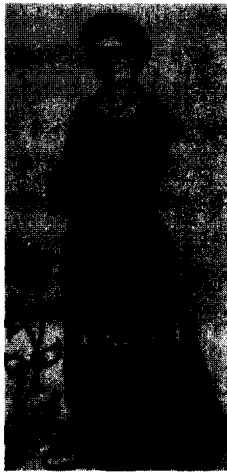
[사진 1]은 16세기에 그려진 채색 목판화인데 여기에서 잔은 길이가 긴 원피스 형태의 옷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사진 2]는 칼과 도끼를 들고 있는 잔을 묘사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도 역시 잔은 긴 드레스를 입고 있다. 잔이 입고 있는 이들 옷은 검소하고 단순한 원피스 드레스이다. 스커트 형식의 이러한 드레스는 당시 농촌 소녀들이 집안 일이나 농사 일을 하는 등 일상에서 착용한 생활복인데 이 시기의 잔은 관습이나 규범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제2시기(1429.1~1430.5)

제2시기는 잔이 보쿨뢰르의 사령관을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난 때부터 전투에 참여하고, 포로가 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 잔이 착용하는 복장은 그녀의 처형의 이유와 직접 관련된다.

잔이 보쿨뢰르에 들어설 때(1429.1말)의 옷차림은 붉은 옷(스커트)을 입은 소박한 차림이었다고 당시 목격자는 묘사하고 있다<sup>12)</sup>. 이때의 잔의 복장은 구체적인 것을 알기는 곤란하지만 잔을 데리고 간 친척의 생각<sup>13)</sup>과 이 당시의 잔의 복장에 대해서는 후일의 재판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을 볼 때 당시의 풍속에서 벗어나지 않은 옷, 즉 농촌 소녀들이 입는 스커트 형식의 복장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잔이 본격적으로 남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샤르르 7세를 만나기 위해 시농(Chinon)으로 출발한 때부터이다. 이 때의 잔은 시농의 소년처럼 짧은 머리를 하고 바지와 감옷에 칼을 차고 말을 탄 모습이다. 당시 그녀를 경호한 두명의 경호원은 그녀가 바지와 감옷을 완전히 입은 채 헛간의 짚단이나 노천에서 두 경



[사진 1] 잔 다르크, 채색목판화, 16C, [사진 2] 칼과 도끼를 든 잔, 세밀화, [사진 3] 시농 성에 도착한 잔, 벽걸이, 15C  
이은희 역, 전개서, p. 11.



이은희 역, 전개서, p. 23.



세기말, 이은희 역, 전개서, p.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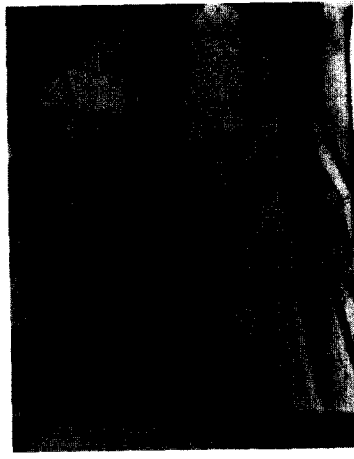
호원들 사이에 누워 잠을 잤다고 회상하고 있다<sup>26)</sup>. [사진 3]은 15세기 말에 제작된 벽걸이용 양탄자에 묘사된 잔의 모습이다. 잔이 시농에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한 이 작품에서 그녀는 인체에 꼭맞는 호즈 위에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그녀의 이러한 차림은 입성 후 여장을 풀 후 왕의 신하들과 성직자들에게 인사를 할 때에도 계속되었다. 이 기간을 통해 잔이 군복을 입지 않고 여성 복장을 한 것은 시농성에서 왕을 알현할 때이다. [사진 4]는 샤르르 7세에게 나아가는 잔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그녀가 입고 있는 튜닉형의 원피스 드레스는 당시 전형적 여성복인 꼬뜨(Cotte)로 몸에 꼭 끼게 되어있는 상의 부분과 헵라인을 향해 프레어지는 긴 스커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사진 5]는 잔이 샤르르 7세에게 트루아시를 공격할 것을 설득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때에도 잔은 스커트 형식의 드레스, 꼬뜨를 입은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다.

왕을 만나고 오르레앙으로 가는(1429.4) 잔은 공인된 전사(戰士) 또는 투사(鬪士)로서 무장(武裝)을 하였다[사진 6]. 그녀의 무장은 잔을 위해 특별 제작된 갑옷을 입고 백합과 하느님과 천사들의 그림이 있는 흰색의 깃발과 칼을 들고 있다. [사진 7]은 청동상으로 말을 탄 잔이 투구까지 갖춘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8]은 고티에가 제작한 판화인데 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달리는 잔을 묘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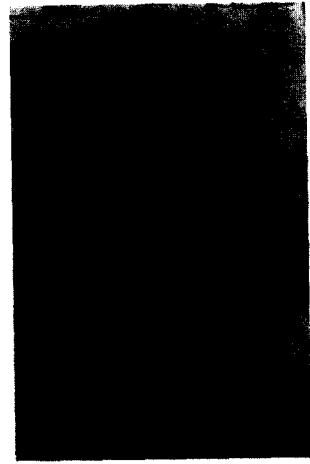
고 있다. [사진 9]는 앙그르(Ingres, Jean Auguste Dominique, 1780~1867)가 그린 그림으로 샤르르 7세의 대관식날의 잔의 모습이다<sup>27)</sup>. 그림에서 잔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은 역시 군복이다. 금속판으로 된 갑옷에 호즈를 입고 그 위에 문장이 묘사된 덧 옷을 입고 손에는 군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르는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 10]은 성 데니스 사원(ST-Denis)의 부조에 새겨져 있는 잔의 군장의 형상을 재현한 것이다<sup>28)</sup>. 이 부조는 1429년 잔이 데니스 사원을 칠수할 때 남겨두고 간 군장을 참고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이로부터 당시 그녀의 복장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실루엣으로 나타난 이 그림에서 잔은 복면 투구까지 쓰고 있는 완전 군장의 모습이지만 허리에 테잎을 두르고 군복의 표면에는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으며<sup>29)</sup> 가는 허리에 넓은 힘을 보여주는 등 바지 스타일의 옷이지만 신체의 윤곽을 세밀히 드러나게 하여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나타낸다. 데니스 사원의 부조물을 포함하여 후세의 작품에서 잔의 모습은 작가에 따라 묘사의 정도에는 차이가 나지만 금속판을 이용하여 인체에 꼭 끼는 전투복 차림의 잔을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잔이 여자이기 때문에 군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남자들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당시 일반여성들이 착용하는 스커트 형식의 복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양쪽의 다리의 형태를 정확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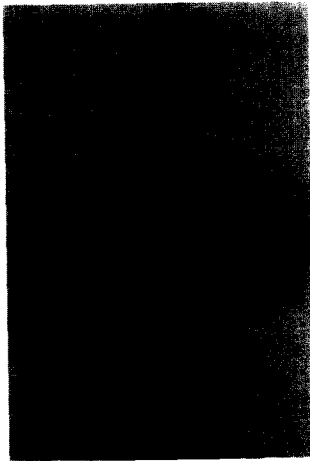
[사진 4] 샤르르 7세에게로 나아가는 잔, 화보 15세기, 이은희 역, 전개서, p. 40.



[사진 5] 왕을 설득하는 잔, 화보, 15C, 이은희 역, 전개서, p. 68.



[사진 6] 전투복의 잔, 폴랑드르 화파, 15C, 이은희 역, 전개서, p. 48.



[사진 7] 말을 탄 잔, 청동상, 15C, 이은희 역, 전개서, p. 172.



[사진 8] 말을 탄 잔, 고티에, 판화, 1612, 이은희 역, 전개서, p. 8.



[사진 9] 대 관식에서의 잔, 앙그르, 1851-54, 이경성 외, 세계의 명화4, 삼성이태아, 1988, p. 69.

드러내고 말을 타거나 전투를 지휘하는 잔은 진지하고 용맹스러운 분위기로 당시의 연약하고 부드러운 여성성과는 반대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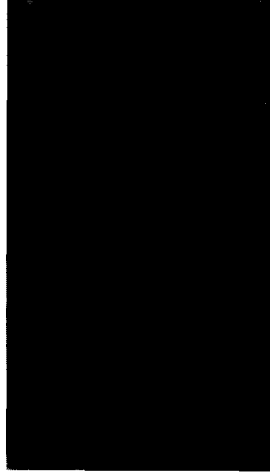
3) 제3시기(1430.5~1431.5)

제3시기는 잔이 1430년 5월, 포로가 된 이래 1431년 1월부터 종교재판을 거쳐 5월 30일 처형 당하기까지의 시기이다. 잔은 전투중 붙잡혀 포로가 된 이래 처형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남장인 전투복 차

림으로 보내고 있다. 잔이 포로가 되어 이송된 보르부아 성에서 그녀에게 호의적인 두명의 귀부인이 잔을 다시 영국군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여자옷을 입도록 권하였지만 두여인의 권유를 거절한다. 잔은 이어서 재판관들 앞에서도 남장을 하였다. 이 기간중 잔은 여성복을 두 번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진술서에 사인을 하면 교회에 가서 고백할 수 있게 해준다는 당국의 약속을 믿고 진향서약을 했을 때이고



[사진 10] 무장을 하고 있는 잔,  
<http://members.xoom.com/~Xmcm/HYWWebsite2/joanofarc-armor.htm>



[사진 11] 잔을 재판하는 주교, 세밀화, 15C, 이은희 역, 전개서, p. 100.



[사진 12] 처형장에서의 잔, 세밀화, 15C, 이은희 역, 전개서, p. 140.

또 한 번은 그녀가 처형된 날이다.

전향서약을 한 잔은 참회복을 입었는데 사흘 후에 기사들이 입는 속옷과 바지, 장화를 신는 남자들의 옷차림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판사들이 원한다면 다시 여자옷을 입겠다고 한 것으로<sup>30)</sup> 보아 참회복은 스카트 형식의 여성복임을 알 수 있다. [사진 11]은 주교 피에르 코송(Pierre Cauchon)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잔을 묘사한 그림인데 앉아 있는 사람이 주교이고 원피스 형식의 복장을 하고 서있는 여성이 잔이다.

잔은 처형되는 순간에는 길이가 긴 여자옷을 입고 머리수건을 쓰고 싶다는<sup>31)</sup> 소망대로 여자옷을 입고 있다. 역서에는(이은희역, 상계서) 잔이 착용하기를 원하는 옷을 '길이가 긴 여자옷을 입고 머리수건을 쓰고 싶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머리수건은 당시 일반여성들이 외출이나 종교적 행사 때에 머리에 쓰던 베일의 일종인 웁플(wimple)<sup>32)</sup>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진 12]는 잔을 처형하기 위해 형리들이 그녀를 묶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세밀화이다. 그림에서 잔은 당시 여성복인 튜닉형의 원피스 드레스인 꼬뜨 차림에 상당히 긴 머리를 하고 있다. 잔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명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남장을 계속하였으나 하느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의 소망대로 복

장을 바꿔 여성의 차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길게 늘어뜨린 그녀의 머리는 이러한 여성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전향서약을 하고 머리를 박박 깎인 때와(5월24일) 처형당할 때(5월30일)와의 시간적 간격은 그녀의 머리 길이가 그렇게 길게 자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차이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지만 이 그림은 잔이 처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5세기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잔의 복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 4. 남장의 이유 및 동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잔의 복장은 고향을 떠나기 이전의 여성복장의 시기와 소명의 음성과 환상을 따라 집을 떠난 이후 처형 직전까지의 남자복장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처형의 원인이 된 잔의 남장은 남자들이 전투시에 착용하는 전투복 즉 군복인데 그녀는 이 옷을 전장에서 또는 수감중이거나 재판받는 기간 내내 착용하였다. 잔의 남장은 자의에 의한 것으로 그 이유 및 동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 신의 계시에 의한 것

잔의 남장은 그녀의 움직임의 원천이 되는 신의



계시인 음성과 환상에 의한 것이다. 잔은 여성이 남장을 하는 것은 신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명의 음성은 그녀로 하여금 머리를 자르고 남자의 제복인 군복을 입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sup>33)</sup> 이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그녀가 남장의 이유를 하느님의 뜻에 두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남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판중에 있었던 판사와 잔의 대화로부터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미사드리러 갈 때 입으라고 피고에게 제공한 여자옷은 왜 입지 않는가?”

하는 판사의 질문에 대한 잔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하느님 마음에 들 때까지 입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처형받으러 갈 때에는 길이가 긴 여자옷을 입고 머리수건을 쓸 수 있으면 좋겠소. ... 하느님이 내게 지시하는 것을 거역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소..., 하느님이 날 보내신 뜻을 다 이룬 후에는 곧바로 여자옷을 입을 것...”<sup>34)</sup>

이러한 답으로 미루어볼 때 잔은 영국군을 몰아내고 프랑스를 구해야한다는 소명의 음성과 환상으로 나타나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남자옷을 입어야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하느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형 당시에는 여성복을 입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남장에 대한 잔의 이와 같은 생각은 남장의 이유 및 목적이 우선적으로 종교적인 것에 있음을 알게 한다.

## 2) 신체보호의 명분

잔은 샤르르 7세를 만나기 위해 그가 체류중인 시궁으로 출발한 때를 시작으로 영국군과 전투중이거나 감옥에 수감중일 때에는 남장 즉 군복을 착용하였다. 잔이 집을 떠난 이후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군복 차림을 해야만 한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 당시의 정황에서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에서 군인들이 갑옷으로 된 군복을 착용하는 이유는 칼이나 화살과 같은 무기로부터 신체상의 상해를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투지에서 잔은 군복을 착용하였을 것이지만

이것이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잔이 공개적으로 남장을 시작한 것은 왕을 만나기 위해 시궁으로 출발한 때이다. 프랑스 영내에서 영국군과 교전을 하는 상황에서 잔은 시궁으로 가야하고 이때 그녀를 호위하는 병사들은 남자들이고 그 수는 소수이다. 영국군의 눈에 띄지 않고 또한 남자 군인들 속에서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여성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자 간수들이 지키는 감옥에 수감중일 때 역시 잔은 여성성을 드러내지 않는 복장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향서약을 하고 여성복장을 한 사흘 만에 다시 남장으로 돌아간 것은 간수들에 의한 성적인 괴롭힘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sup>35)</sup>. 소수의 병력으로 적을 피해야 하고 수많은 남자 군인과 간수들 속에서 유일하게 여자이고 더욱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남장이었을 것이다. 잔의 남장에 대한 이러한 동기는 같은 시기에 그녀가 여성의 복장을 하고 있을 때의 정황과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잔은 집을 떠나기 이전 농촌 소녀로 생활할 때나 시궁성에서 왕과 만날 때에는 여성복을 착용하였다. 농촌 소녀로서 살던 시기와 왕을 알현하는 공식석상은 외부로부터 위해가 없는 안전한 곳이다. 한편 잔은 수감중 전향서약을 하고 여자 죄수복으로 바뀌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남장으로 돌아갔다. 잔은 남자 간수가 아닌 수녀들이 지키는 교회 감옥으로 옮겨주면 여성복을 입겠다고 하였지만 이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잔은 수감중 발생 가능한 성적인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서 다시 남장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잔이 남장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잔의 남장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남자들 속에서 유일한 여성인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한다.

## 3) 합목적성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서의 복장은 기동성과 활동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 조건에 맞는 것

은 스커트 형식의 여성복 보다는 바지 형식의 남성복이고 이에 따라 군인들은 전장에서 전투복인 군장을 한다. 프랑스 군인을 격려하고 사기를 돋구어 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능하게 한 잔의 경우 전장에서 효율성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길이가 긴 스커트로 된 여성복 대신에 바지형의 군복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목적에 맞게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잔이 살았던 중세에는 이에 앞서 우선되는 것이 남녀 각 성의 구별이 복식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각 성은 다른 성의 의복을 착용해서는 안되는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여성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잔의 남장은 당시의 사회 체제 및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침내 처형에 이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5. 잔의 남장에 대한 중세의 성 의식과 복식관

잔의 남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적, 현실적 이유에서 목적에 합당하는 복장을 하고자 한 것으로 그 이유 및 동기를 찾을 수 있고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사회 질서 및 체제를 혼돈 또는 교란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됨으로서 오늘날과는 차이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미의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중세복식에서 남녀의 성차는 의복이 인체에 밀착되어 그 부분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위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하체를 중심으로 볼 때 남자는 상의가 짧아짐에 따라 호즈(hose)로 감싸진 하체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여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체를 꼭 끼게 한 반면 통형으로 된 스커트 형식의 의복 속에서 하체의 형태는 은폐되어 나타난다. 하체는 신체의 구조상 남녀를 구분짓는 성기가 위치하는 부위이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리이다. 다시 말하여 다리는 남녀 모두가 갖고 있는 신체의 일부분이고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이에 위치하는 성기가 있기 때문에 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가 된다. 따라서 다리를 감싸는 의복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시각의 차이에 의해 그 형태 및 의미에서 차이를 드러내게 되고, 중세의 복식에서 남녀의 성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남녀의 하체에 대해 사회적 문화적으로 관념 또는 의미의 차이가 확고해졌음을 의미한다.

다리는 여성의 경우 은밀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이곳을 걸음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은밀한 것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sup>36)</sup> 드러내서는 안되는 부위로 인식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에로틱한 매력을 나타내는 포인트이고 동시에 남성을 상징하는 사회적이고 관념적인 기호로 인식되었다<sup>37)</sup>. 남성과 여성의 다리에 대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개념의 차이는 형태는 물론 입은 모습도 전혀 다른 남녀의 하의를 만들어 내었다. 남성의 하의인 호즈는 밀착되어 다리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므로서 힘을 상징하는 남성의 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한데 비해 여성의 하의인 스커트는 양쪽의 다리를 은폐시키므로서 인체의 감춰진 부분을 암시하는 간접적 방법으로 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것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하반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반영이고 동시에 스커트 속에 감추어진 다리 부위에 대한 강한 인식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스커트는 남녀의 성을 구분하고 동시에 여성의 행동을 규제하는 상징물로 확고히 고정되어 바지스타일의 남성에 비해 수동적이고 유순한 여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다리에 대해 나타나는 개념의 차이 및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하의에 대한 형태 및 의미의 차이는 남녀를 대치되는 개념으로 놓는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남자는 바지, 열등한 여자는 치마라는 복장상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바지나 스커트는 단순히 형태가 다른 의복의 종류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기호로서 깊이 인식되고 사회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은 남녀간의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관능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뻔뻔하고 경박스러우며 부도덕하고 천박한 행위로 생각하고 금지하였다<sup>38)</sup>.

잔이 생존한 당시에는 사람에게 해를 주는 부정

적인 존재는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습속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성서에서 괴물로 묘사된 거인들은 대체로 이상한 복장을 하고 사람을 잡아 먹거나 바위를 떨어뜨리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sup>2)</sup> 이러한 사고는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의 인물이나 괴물을 이상한 옷을 착용한 존재로 연결시키게 하므로서 복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그리하여 남장을 하고 남자들 속에서 생활하고 군대를 이끈 잔의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부정적인 여성이라는 인식 속에서 잔을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존재인 마녀로 몰 수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복장을 통한 것이다. 기독교라는 큰 이데올로기 속에서 일원화된 중세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의 옷인 바지 스타일의 복장을 한 잔의 행동은 사회적 전통에 대한 도전이고 종교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자로 간주되어 그 죄를 물을 수 있었다. 성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되지 않은 중세 사회에서 공동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규범, 도덕, 관습과 같은 룰에서의 이탈은 그 사회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시의 관점에서 볼때 자신의 생각대로 필요에 의해 의복을 착용한 잔의 행동은 사회를 교란시키고 문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중세의 남성과 여성의 복장에 대한 윤리관과 미학을 거스른 잔의 바지 차림은 처형을 위해 그녀가 마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하는 재판관들에 의해 치명적인 증거로 제시될 수 있었다.

#### IV. 결론 및 요약

잔 다르크는 중세 프랑스와 영국간에 벌어진 백년 전쟁 당시의 실존 인물로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여성이지만 종교재판의 결과 이단자와 마녀로 취급 받고 화형을 당했다. 당시 재판에서 제시한 잔에 대한 죄목 세가지중 하나는 그녀의 남장에 대한 것이었다. 여성의 남장이 재판을 받고 처형까지 당할 정도라는 것은 그것이 공동사회에서의 기본 질서를 교란시킨 중요한 범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복식에 대한 관점이 오늘날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눈 앞에 보이는 것 즉 현존하는 것들이 그 사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전부 또는 대표되는 것으로 보는 전통철학의 체계에서, 남녀의 성을 대립의 구도 속에 놓고 하나의 성은 단지 하나의 성을 특징짓는 복장을 해야한다는 성의 이분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당시 잔의 남장은 여성이 여성의 복장을 하지 않고 다른 성인 남성의 복장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의 쟁점이다. 각 성은 다른 성의 복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개념 즉 복식으로 구분하는 성의 이분법은 기독교의 주요한 기본 개념인 이원론에 의한 것이고, 중세는 기독교에 의해 사람들의 생활 및 의식체계에 큰 영향을 받은 시기이기 때문에 복식을 통한 성의 이분법은 중세사회에서 질서체계 또는 목적의 유지를 위한 엄격한 윤리관으로 작용하여 이를 어긴 경우 사회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잔의 남장은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범죄로 인정되어 처형될 수 있었다.

성의 이원론에 따라 복장으로 엄격히 구분되는 남녀간의 성차는 양성간의 복식의 외형과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복식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중세 이후 고정관념으로 지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슬라미스 파이어스토운과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남녀간의 성의 갈등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 갈등의 형태이고 근원이라고 하였다<sup>3)</sup>. 잔의 남장에 따른 일련의 사건들은 성에 대한 경직된 사고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것으로 남녀간의 성의 갈등이 복식이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나타난 것이다.

#### 인용 및 참고문헌

- 1) 이은희 역(헤르베르트 네테), 잔 다르크, 한길사, 1988, p. 192, 211.
- 2) [http://members.xoom.com/Jeanne\\_Darc/joanofarc-portraits.html](http://members.xoom.com/Jeanne_Darc/joanofarc-portraits.html)
- 3) 류형기, 성서대사전, 한국기독교문화원, 1980, p. 943.
- 4) 성서백과대사전편찬위원회, 성서대백과사전, 성서교재간행사, 1981, 259-260.
- 5) 황필호, 철학적 여성학, 종로서적, 1988, 171-175.
- 6) <http://iartyou.com/onlineclass/cyber-lecture/>

- windo.../0604-1.ht
- 7) 황필호, 전계서, p. 206.
  - 8) 이윤기 역(파울 프리샤우어), 세계풍속사 상, 까치, 1991, p. 299, 317.
  - 9)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1984, p. 86, 89, 90.
  - 10) 성서백과대사전편찬위원회, 전계서, p. 503.
  - 11) 이은희 역, 전계서, p. 102.
  - 12) 마법의 역사, <http://www.iresys.pe.kr/seven/law/1001.htm>
  - 13) <http://minjung.peacenet.or.kr/mook/5ho/kmj3.htm>
  - 14) 이은희 역, 전계서, 99-101.
  - 15) 이은희 역, 전계서, p. 100.
  - 16) 高階秀爾, 歴史のなかの 女たち, 文藝春秋, 1979, p. 44.
  - 17) 이은희 역, 전계서, p. 81.
  - 18) 이단자 또는 마녀라는 죄목으로 처형된 잔 다르크는 1455년, 샤르르Ⅷ세의 명에 따라 신앙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복권소송"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1920년에는 가톨릭교회에 의해 성자의 열에 올랐다.
  - 19) 高階秀爾, 전계서, p. 38, 42.
  - 20) 이은희 역, 전계서, p. 12.
  - 21) <http://www.ewtn.com/library/Mary/Joanarc.TXI>
  - 22) 잔 다르크가 체험한 신의 계시로서의 '음성과 환상'은 오르레앙의 점령군을 몰아낼 것이라는 내용이다.
  - 23) 이은희 역, 전계서, p. 30, 76.
  - 24) 이때의 친척은 잔의 어머니의 사촌으로, 잔이 평범한 농부의 딸로서의 삶을 계속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잔으로 하여금 당시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복장을 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25) 이은희 역, 전계서, p. 33.
  - 26) 앙그르는 이 그림에서 500여년전의 잔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세부적인 것까지 면밀히 연구하여 정확히 역사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 27) 잔은 파리에서 철수할 때 성 테니스 성당에 그녀의 군장을 남겨두었다.
  - 28) The Armor of Joan of Arc, <http://members.xoom.com/~XMCM/HYWWebsite2/joanofarc-armor.htm>
  - 29) 이은희 역, 전계서, p. 98.
  - 30) 이은희 역, 전계서, p. 134, 136.
  - 31) 이은희 역, 전계서, p. 123.
  - 32)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p. 136.
  - 33) <http://www.netsrq.com/~dbois/joanarc.htm>
  - 34) 이은희 역, 전계서, p. 123, 129.
  - 35) 이은희 역, 전계서, p. 135.
  - 36) 박영수, 마음은 인체의 어디에 담겨 있을까, 을유문화사, 1997, p. 20.
  - 37) 能澤慧子, 二十世紀モード, 講談社, 1994, 134-140.
  - 38) 이윤기 역, 전계서, p. 362.
  - 39) 加藤秀俊, 多田道太郎 譯(Bernard Rudofsky), みっともない人體, 鹿島出版會, 1989, 102-103.
  - 40) 이소영·정정호,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새로운 문화정치학을 위하여-, 한신문화사, 1995, p. 130.
  - 41) 강근환,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성, <http://sgti.kehc.org/data/tield/church/5.htm>
  - 42) 김순심 외 3인 역(Susan B. Kaiser), 복식사회심리학, 경춘사, 1990.
  - 43) 김주영·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내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2(1), 1998.
  - 44) 김호용, 공동번역성서(가톨릭 용), 대한 성서공회, 1989.
  - 45) 박미경 역(해리엇 길버트), 성의 여성사, 까치, 1997.
  - 46) 신기철 외,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80.
  - 47) 심정순·염경숙, 페미니즘 이론 사전, 삼신각, 1995.
  - 48) 이기웅, 박종만 역(에두아르트 폭스), 풍속의 역사 I, 까치, 1993.
  - 49) 이영재·박민여,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24(8), 2000.
  - 50) 임현영, 명작 속의 여성, 1993.
  - 51) 장문호, 서양미술사, 형설출판사, 1988.
  - 52) 차하순, 서양사총론, 탐구당, 1989.
  - 53)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 54) 한순자, 군복에 대한 연구, 복식 32, 1997
  - 55) Aileen Ribeiro, Dress and Morality, Holmes & Meier, 1986.
  - 56)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Charles Scribner's Sons, 1958.
  - 57) 石山彰, 服飾辭典, グヴィッド社, 1972.
  - 58) 深井 晃子역(Saint-Laurent, Cecil), 女性下着の歴史, Wacoal, 1989.
  - 59) 仲川秀樹, 女子中高生とジェンダー, 衣生活研究11, 1990.
  - 60) 齊藤忠直 외, 世界の軍服, 婦人書報社, 1971.
  - 61) SOENEYE, no. 23.
  - 62) <http://203.253.64.1/~haemun/98%b3%e2%bf%b5%8%ad%a6.htm>
  - 63) <http://www.thomson.com/gale/cwh/joan.htm>
  - 64) <http://www.newadvent.org/cathen/08409c.htm>
  - 65) <http://www.durihana.com/sh6.htm>
  - 66) <http://www.koreatimes.co.kr/11-6/20.../h200003131824231601182.ht>
  - 67) <http://bbs.kcm.co.kr/NetBBS/Bbs.dll/worldnews/qry/zka/B2-kC2Bt/.../>
  - 68) <http://www.netsrq.com/~dbois/joanarc.htm>
  - 69) wysiwyg://thePage.100/<http://members.xoom.com/~XMCM/HYWWebsite2/joanofarc-myths.htm>